

설명을 넘어 감동으로, 창조적 그림보기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변화와 혁신이다.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익숙해졌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하고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늘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의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도 문제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먹어본 음식을 선호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그 지역의 새로운 음식은 먹어보기도 전에 혹시 입에 맞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그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낯선 곳으로의 여행도 마다한다. 하긴 우리에게 편함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보아도 아는 그림만 본다. 그래서 그런지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전이 열릴 때면 그 어느 때고 인산인해를 이룬다.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 마음 쓰고 생각할 일이 적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하고 익숙한 그림을 선호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림을 보는 것, 현대미술을 감상한다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 현대미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고 그것을 표현한다. 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니면 눈에 띄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기도 한다. 아니 발견에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내부에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이를 정리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즉 변화와 혁신에 대해 면역성을 갖게 하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림을 보는 이유이자 음악을 듣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상파에 고흐나 피카소에 열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암기과목 공부를 하듯 본다. 작가의 이름과 생몰연도, 비평서에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명제표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우고 그것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는 감상이 아니다. 감상의 본질은 감동과 감명에 있으며 이는 설명을 초월한 경지이다. 그런데 우리의 그림감상은 여전히 설명에 머물러있다. 마음에 파동이 일지 않았다면 진정한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림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일, 즉 외우는 일은 감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판화는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것에 매몰되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지 또 갑자기 보이는 새로운 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는지를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부조 속 물고기와 새가 함께 존재하는데, 새를 먼저 본 사람과 물고기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각각 자신이 먼저 본 것에 확신을 가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물고기와 새는 공존하고 있다. 무엇을 먼저보고 생각하고 떠 올리느냐, 뒤늦게 눈에 들어온 물고기나 새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어라 말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감상의 요체다. 즉 그림을 보는 것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에게 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모네의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1883년 경)은 일명 코끼리바위라 불리는 절벽을 그린 사실을 알게 되면 일몰보다 익숙한, 알고 있는 코끼리라는 형상으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연히 본 바위에서 사람의 얼굴형상을 발견한 이후로 다시는 그 바위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도 고정관념, 보이는 것, 아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때문이다.



에셔, Den Haag relief



프랑스 에트르타 코끼리바위



모네, The Cliff, Etretat, Sunset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같은 문제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아야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언제나 같은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혔다고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또 가끔은 정답(?)을 보고 풀면서 스스로 해결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언제까지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푸는 복습만 계속할 것인가.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설명하는 그림보기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 어렵겠지만 감상을 권한다.